



[산업]  
현대·기아·쌍용  
하반기 대형 SUV  
경쟁 예고  
06

[유통]  
패피족의 힘  
쑥쑥 크는 남성복 시장  
1000억 브랜드 속출  
L1



## 서울시, 24개 공기관 혁신 보고회

# 따릉이 4만대… 공공임대 7만호… 무방문 보증 30%

**따릉이 2배 확대해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시민 참여 늘려  
변화에 맞춰 선도적인 정책 만들 것**

서울시는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 완수를 위해 시 산하 24개 투자·출연기관의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시는 10일 오후 3시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24개 기관이 수립한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 및 논의하는 '서울시 민선7기 투자·출연기관 혁신보고회'를 열었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간부, 24개 투자·출연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서울시설공단은 2020년까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2만대에서 4만대로



박원순 서울시장.

/손진영기자 son@

확대한다. 따릉이 정비와 수리를 지역의 동네 자전거방 424곳에 맡겨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2년까지 공적

임대주택 공급목표 24만호 중 6만7000호를 공급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고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한다. 이와 함께 시

민주주단을 구성,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등 사업 전반에 시민참여를 늘리고, 지역 재생기업을 육성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운행 중인 전동차의 고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한 후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부품 재고와 이력을 연동해 관리하는 '스마트트레인' 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구축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동차 이상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운행 장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공사는 기대한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현재 20% 수준인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 비중을 202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아세안시장의 유통 플랫폼과 제휴를 맺고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분야 소기업 우수상품을 현지

유통망에 진입시킬 계획이다.

120다산콜재단은 상담 빅데이터를 통해 행정민원정보를 분석,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의료원은 퇴원 후 돌봐줄 사람이 없는 1인 가구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관리해주는 '엄마 손 케어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임산·출산 클리닉을 통해 출산교육과 진료비 등을 지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24개 투자·출연기관의 혁신방안을 공유하고 서울시와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해 시민 삶을 바꾸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며 "경제, 인구, 사회문화, 기술 변화에 발맞춰 선도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경기도, 여성일자리창출 우수기업 54곳 선정

**여성 일자리·고용유지 등에 앞장 서**

경기도는 10일 우수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인재 활용 등에 앞장 선 54개 기업을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사업'은 3년 이상의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200개사에 달한다.

올해 선정된 54개사가 지난 해 1년간 창출한 일자리는 685개, 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49%(338명)이 여성근로자로 전국 평균 43.8%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여성 일자리 창출 이외 고용 유지와 인재활용분야도 두각을 보였다.

화성에 소재한 자동문 제조기업 주식회사 코아드는 여성 직원의 근속기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55%)과 여성관리자의 비율(43%)이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장려금 제도와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 여성새일센터와 연계하여 양성 평등 교육을 하는 등 여성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수중모터펌프를 생산하는 하지공업(주)

은 여성근로자 전원이 관리자 직급으로, 출산축하금 및 선물을 지급하는 한편 가족 사랑의 날, 사내 멘토링 제도, 문화·건강회식 제도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선정 과정에서 실시한 노무실사와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별 맞춤컨설팅을 제공해 선정 기업들의 여성 일자리 창출 역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순희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사업 시행 초기에는 '여성일자리창출'에 집중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개념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각종 문화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추세가 뚜렷해졌다"면서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에서 직장의 한 구성을 이루면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2018 세종대왕 문화제' 어가행렬

지난 9일 경기도 여주시 시내대로에서 '2018 세종대왕 문화제'의 어가행렬이 펼쳐지고 있다.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해 열린 이번 문화제는 다양한 공연, 이벤트, 전시, 체험 등을 통해 한글을 창제한 세종의 애민정신을 소개했다.

/연합뉴스

## 주거·교육 등 강남북 균형발전 7대 과제 선정

**시민참여단 '해법 찾기' 토론회  
83.5% 균형발전 정책추진 지지**

서울 시민들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교육기회와 인프라 확대 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균형발전 해법 찾기' 1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는 9월 29일과 지난 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436명의 시민 참여단이 참석했다.

시민참여단은 서울균형발전 주요 과제로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교육기회 및 인프라 개선 ▲안정적 재원 마련과 낙후지역 재정 지원 ▲주요 기관 이전 및 지역 특성화 개발 ▲접근성 및 교통인프라 개선 ▲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시민연대의 식 회복과 인식개선 등 7개를 선정했다.



서울균형발전 해법찾기 1차 토론회.

/서울시

주거안정과 관련해 시민들은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늘리되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구립 어린이집 확대를 요구했다.

안정적인 재원을 위해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세금으로 재정을 확보해 낙후 지역을 발전시키고 집값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에 앞서 시는 지난달 13~15일

1000명의 온라인 참여단을 구성해 서울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6%가 서울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설문 조사 참여자의 83.5%는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 응답자의 81.2%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75.2%가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토론회에서 제안된 균형발전 주요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 마련 방안과 행정 사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11월 초까지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서울균형발전 후속 조치 방안 마련과 균형발전 기본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 특별판매·무상점검… '장안평 자동차 축제'

**자동차 분야별 종사자들 기술 선봬**

서울시는 오는 13일 장안평역 6번 출구 일대에서 '2018 장안평 자동차 축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안평 자동차축제는 중고차매매, 부품, 정비 등 지역 내 9개 자동차산업 대표 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행사다.

올해 축제에서는 '장안평은 거대한 자동차 문화학교'를 슬로건으로 지역산업 분야별 종사자들이 각자의 지식과 기술을 뽐낸다.

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중고차동차 매매단지에서 별어지는 '특별판매'에 주목해보자. 온라인과 타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미리 상품차량을 살펴보고 방문할 수 있다.

자동차 방문객을 위한 무상점검 서비스도 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지역인들이 차량 점검과 자가정비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1층에서는 1t 트럭 엔진 해체, 재조립, 재작동 시범을 보이는 '엔진 해부학'이 진행된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전기세차, 드라이 덴트(자동차의 찌그러진 부분을 펴는 기술) 코너에서는 장인들이 직접 기술을 선보인다.

기타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맹훈 도시재생 본부장은 "장안평 일대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